

지역 특화품목 활성화 추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시행

진안군, 총 8가지 작목 선정 생산기반 확충 등 총력

진안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지역 특화품목 선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품목 수박, 토마토, 사과, 건고추, 육성품목 오이, 깻잎, 딸기, 상추 총 8가지 작목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전략품목은 매출액 70억, 육성품목 30억 이상을 목표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진안농업 실현을 위하여 생산기반 확충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농업 협력사업으로 20% 추가 지원하여 자부담을 40%에서 20%로 경감했으며,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

우스의 5개 사업에 대하여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 단가 현실화로 주민 편의 및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농협협력)은 지난해 행정농협 파트너십 구축 간담회 시 농업 협력사업 제안으로 수요조사 실시, 추진계획 협의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이뤄낸 성과이다.

올해에도 보조 60%, 자담 40%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사업이며, 농협중앙회 10%, 지역농협 1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145백만원이며 35농가/5.5ha가 선정

됐으며, 2월중 보조결정하여 상반기 내 사업 추진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특화품목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희망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의 6개 사업에 2,000백만원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스마트팜 확충, 청년 농업인·귀농인 등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사업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농자재 및 난방비 폭등으로 농업경쟁력 부담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행정-농협 협력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특화품목 육성 및 농가에게 피부로 와 닿는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보건의료원, 건강한 성장 위해 월령별 검진 전액 무료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성장 발달 사항을 점검하고 미래의 꿈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생후 14일에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월령별 검진시기는 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시기에 받을 수 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장수군보건의료원에서 영유아 가정으로 발송하는 안내문과 건강검진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및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검진기간 및 검진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검진비는 전액 무료이며 검진 항목은 문진과 진찰, 신체 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등이다.

검진 완료 후 검진결과는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된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가 '심화평가 권고' 소견이 있는 경우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영유아 검진은 무엇보다 월령별 검진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유아 부모가 인지하지 못해 영유아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료지원과 보건건의약팀(063-350-27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구천동 덕유산 고로쇠수액 '인기'

영양성분 풍부해 봄맞이 보양식으로 많은 소비자 찾고 있어

봄철이 되면서 무주구천동 덕유산 고로쇠수액을 찾는 문의가 잇따르면서 상승가를 치고 있다.

덕유산 고로쇠수액은 청정한 덕유산 일원의 해발 600m이상의 일교차가 큰 고지대에서 채취해 맛이 좋은 건강음료로 최고 품질을 자랑한다.

특히 '덕유산 고로쇠수액'은 덕유산의 지리적 특성과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입산물 지리적표시 제33호에 등록된 지역 특화 입산물이다.

무주구천동 덕유산출가와 만나 생산된 고로쇠수액은 갈륨과 마그네슘, 인, 망간 등의 영양성분이 풍부해 봄맞이



무주구천동 덕유산 고로쇠수액 채취 모습

보양식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어 은은하게 배어져 나오는 단맛이 특

징이며, 수액은 일반 물에 비해 무기질 성분이 약 40배가 넘고 체내 흡수율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덕유산 고로쇠수액은 4.5l, 1.5l, 500ml 포장용기로 판매하고 있으며, 구입문의는 덕유산 고로쇠 영농조합법인(회장 이종배 010-5622-3554)으로 하면 된다.

무주군 산림복지과 신정호 과장은 "청정하고 딱이 풍요로운 덕유산의 정기를 받고 자란 고로쇠 나무의 고품질 '덕유산 고로쇠수액' 한잔 드시면서 그간 코로나19에 지친 몸을 회복하고 생활에 활력을 되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무풍·안성 추가 운영

무주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무풍·안성분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영농철 임대 운영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3월 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장 분소 운영을 통해 농업인 편의를 도모하고 적기 영농활동에 힘쓰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군은 8억2,000여만 원(국비 1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분소를 비롯해 무풍분소, 안성분소에 근무자

14명을 배치했다. 또한 읍·면·동 지분소 농기계 운영을 사전에 정비해 개소 준비를 마친 상태다.

무풍과 안성분소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토요일에도 근무하며, 무주 분소는 휴일 없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무주 분소와 무풍·안성분소에는 굴삭기, 퇴비살포기, 관리기 등 총 76종 456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3,876 농가가 이용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우수제안 선정

진안군은 27일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우수제안 공모' 결과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군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12월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 공모 접수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1차 실무검토, 2차 해당부서 검토를 거친 후 최종 선정위원회에서 20건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각 실무부서와 청년, 사회적기업, 외부전문가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에 대해 창의성, 실행가능성, 효과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심사 결과 총 10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우수제안 선정위원회 개최 모습

건의 제안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제안은 '지방 없는 진안 거리미술관 사업 추진' 제안이 선정됐다. 이는 진안을 시가지로 중심으로 문화예술거리 조성 및 관광자원화를 통해 진안 경제 살리기 및 인구 늘리기 정책을 도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우수 등급에는 '지속가능한 인구늘리기 시책' 제안으로, 진안군 이기탄생 기

념 박석길 조성 및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활용한 청년, 종장년, 귀농 귀촌인 지원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은퇴(예정자) 대상 내 집 짓기 주말 교육지원', '진안을 재미있게 학습 체험하는 대학수업 진안여행 개발 및 공모', '진안군의 발을 활용한 전국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방문하는 주말농장', '입주민-원주민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매뉴얼 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의 인구활력에 관심을 가지고 공모전에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린다"며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발굴하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자금 지원...내달 8일까지 신청

무주군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화를 위한 2023 농어촌 소득지원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업인 등에게 농가 경영안정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소득지원 자금 용자금 총 19억 원을 고정금리 1%(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농업인의 경우 최대 3천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선정된 대상자들에게는 농협무주군지부에서 용자가 실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다음달 8일까지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신청 접수를 마친 후 3월말부터 4월초까지 대상자 적정 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자들에게 용자 지원 결정 내역을 통보할 예정이다.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지원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고 소득향상 아이디어를 가진 농업인·농업법인, 친환경 농업을 실천 구축할 수 있는 농업인,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구조 개선사업으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과 경영안정화를 꾀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인권누리 인권 보호·증진 업무협약

진안군은 27일 사단법인 인권누리(대표이사 신양균)와 군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인권문제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상담 실시, 군민 및 공무원을 비롯한 기관 및 단체의 인권교육을 위한 강사파견 등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진안군과 사단법인 인권누리는 진안군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사)인권누리가 보유한 다양한 인권감사단을 파견하여 인권상담과 인권교육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향후 인권증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및 지원을 약속했다.

신양균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진안군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사)인권누리가 보유한 다양한 인권감사단을 파견하여 인권상담과 인권교육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향후 인권증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및 지원을 약속했다.

전춘성 군수는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진안군 모든 공직자가 인권 존중을 직무 수행의 기준으로 삼는 계기가 되고, 군민 모두가 인권 향유자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권의 가치로 행복한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만6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진안군은 27일부터 만60세 이상 진안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에 나선다.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해 제공하며 노년의 건강한 삶 영위를 돕기 위해 시행한다.

접종대상은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0세 이상(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군민이며 과거 해당 백신 접종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대상포진을 앓은 대상자의 경우 회복 후 최소 6~12개월이 경과하고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접종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진안군 보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 거주 사항과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한 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